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향후 2~3주 이란 강하게 타격. 이란도 파괴적 공격의 대응 강조

- 연준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위험 경계.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감소
- ECB 주요 인사, 유럽 경제는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 금융안정에 주의 요구
- WTI 가격, 중동불안 심화 우려 등으로 급등. 배럴당 150달러 전망도 제기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트럼프의 對이란 강경 발언, 호르무즈 통행 가능성 등이 영향

주가 상승[+0.1%], 달러화 강세[+0.3%],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장초반 급락했으나 호르무즈 개방 기대 등으로 반등 마감
유로 Stoxx600지수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0.2%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중동전쟁 격화 가능성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5%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월 고용보고서 관련 경계감 등으로 하락
독일은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1bp 상승

※ 뉴욕 1M NDF 종가 1509.2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510.6원, 0.6% 하락). 한국 CDS 강보합

		4/2일	4/1일	전일대비			4/2일	4/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582.7	6,575.3	+0.11%	국채 금리 10y	미국	4.30%	4.32%	-1bp
	유럽	596.63	597.69	-0.18%		독일	2.99%	2.99%	+1bp
	중국	3,919.3	3,948.6	-0.74%		영국	4.83%	4.83%	+0bp
	일본	52,463	53,740	-2.38%	CDS 5y	한국	34bp	34bp	+0bp
	한국	5,234.1	5,478.7	-4.47%		중국	51bp	49bp	+2bp
	달러지수	99.99	99.65	+0.34%	위험 지표	EMBI+	-	291	-
환율	유로화	1.1539	1.1589	-0.43%		VIX	23.87	24.54	-2.73%
	엔화	159.60	158.82	-0.49%		WTI유	111.54	100.12	+11.41%
	위안화	6.8851	6.8755	-0.14%	원자재	구리	558.4	564.7	-1.12%
	원화	1,519.7	1,501.3	-1.21%		금	4,676.8	4,758.6	-1.7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향후 2~3주 이란 강하게 타격. 이란도 파괴적 공격의 대응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며, 당초 세웠던 목표의 완료 단계에 근접했다고 평가.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 및 가스를 공급받는 국가들이 해당 지역을 지켜야한다고 발언
- 아울러 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는 자연스럽게 개방되고, 유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 시장에서는 미국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상관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분석
- 이란의 군사령부는 적이 항복할 때까지 파괴적 공격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 혁명수비대는 두바이 소재 Oracle 데이터센터와 바레인의 Amazon 컴퓨팅 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연안국으로서 이란과 오만이 평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의정서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언. 또한 평시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항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첨언
-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은 중동 국가들이 중동전쟁에 개입할 경우 홍해 요충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위협. UAE는 UN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UN 안보리는 호르무즈 해협 해결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
- 주요 언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한편, FT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만 국가들이 호르무즈를 우회할 수 있는 송유관 건설을 본격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필리핀은 이란과의 대화를 통해 자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과를 약속받았다고 발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무력을 통한 호르무즈 개방은 비현실적이며,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 관계자들에 따르면, OPEC+ 가운데 8개 국가는 증산을 주장할 계획이며, 이는 중동전쟁 기간의 수출 감소를 반영한 조치. 러시아는 원활한 가솔린 공급을 위해 기존의 공급 계약을 제외하고 7월까지 수출을 금지. 영국과 일본 등 40여개 국가의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안전을 위한 화상 회의를 개최. 세계은행의 도너휴 이사는 중동발 물가상승과 식량안보 등을 우려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위험 경계.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감소

- 달러스 연은의 로건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경제 문제 중의 하나이며, 단기간 내에 산유국들이 생산을 늘려 유가를 떨어뜨리기는 어렵다고 발언. 또한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통화정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
- 한편, 3월 5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20.2만건으로 전주(21.1만건) 대비 감소. 이는 기업의 해고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의미하며,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에서 저해고, 저채용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2월 무역수지는 573억달러로 전월비 4.9% 증가. 다만 시장 전망치(620억달러 적자)를 하회

■ 미국,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 철강·구리·알루미늄 제품에는 25%

-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정부와의 가격 협상이나 미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에 동의할 경우 해당 명령에서 제외. 또한 복제약은 1년 간 유예. 이번 조치는 약가 인하가 주요 목적
- 아울러 철강, 구리,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제품에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포고령에 서명. 이번 포고문은 6일부터 적용

■ ECB 주요 인사, 유럽 경제는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 금융안정에 주의 요구

- 맥클로프 위원은 중동전쟁 장기화 시 유럽 경제는 당초 전망보다 크게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 이에 필요할 경우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파네타 위원은 최근 에너지 부문 및 사모신용 부문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

■ WTI 가격, 중동불안 심화 우려 등으로 급등. 배럴당 150달러 전망도 제기

- 4/2일 WTI 5월 인도분 가격이 111.5달러를 기록, 전일비 11.4% 상승. 이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강화되면 WTI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 일부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시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UBS)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4/3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고용보고서 및 S&P 글로벌 종합 PMI. 중국 3월 레이딩독 서비스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주요 중앙은행, 중동전쟁 고려한 정책수립 시 과잉 대응 자제할 필요 - 블룸버그

(The Iran War Is Bad for Inflation — But Worse for Growth)

- 글로벌 경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상승 및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성장 둔화에 직면할 우려. 일각에서는 향후 1년 내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을 30% 이상으로 예측. 중동전쟁이 끝나도 글로벌 GDP 전망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
- 이러한 가운데 주요 중앙은행은 정책 대응의 어려움에 직면.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가 현실화되기 전부터 성급한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정책 오류를 유발할 소지. 이를 감안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 선부른 대응에 나서기 보다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에 신중을 기할 필요

■ 주식과 채권 투자자, 중동전쟁 관련 상이한 견해 등으로 대응도 차별화 - 블룸버그

(Stock Traders Bet That Rates Market Is Wrong on Inflation Risk)

-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되면서 주요국 국채금리는 큰 폭 상승. 특히, 스왑시장에서는 ECB의 3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 이는 4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물가급등 우려가 부각된 것과 유사(Amundi)
- 반면 증시에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나 주식 가치 평가는 역사적 측면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이는 지정학적 위기가 단기적이라는 과거 경험, 4월 기업실적 전망치 상향,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에 기인. 이와 같은 해석의 차이는 낙관적 시각으로 미래 수익을 기대하는 주식시장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비하는 채권시장의 본질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Carmign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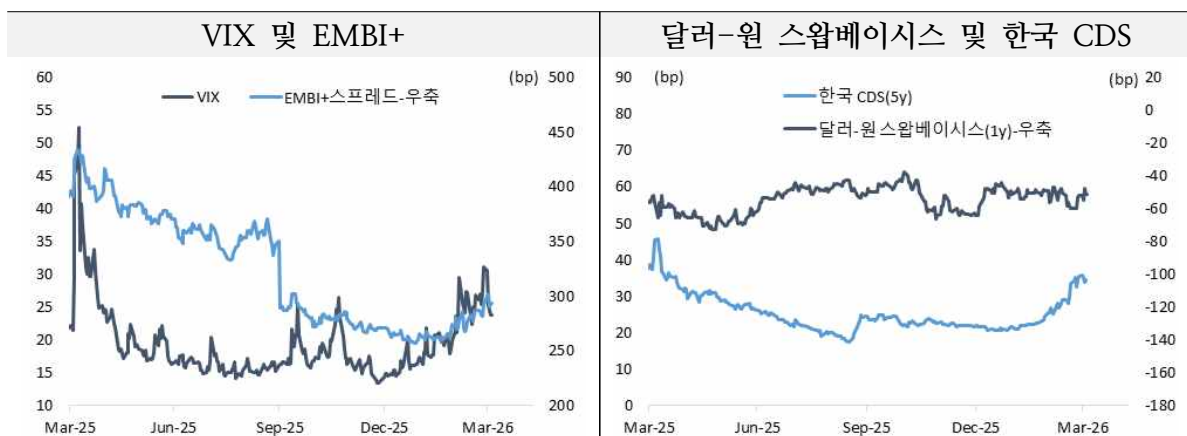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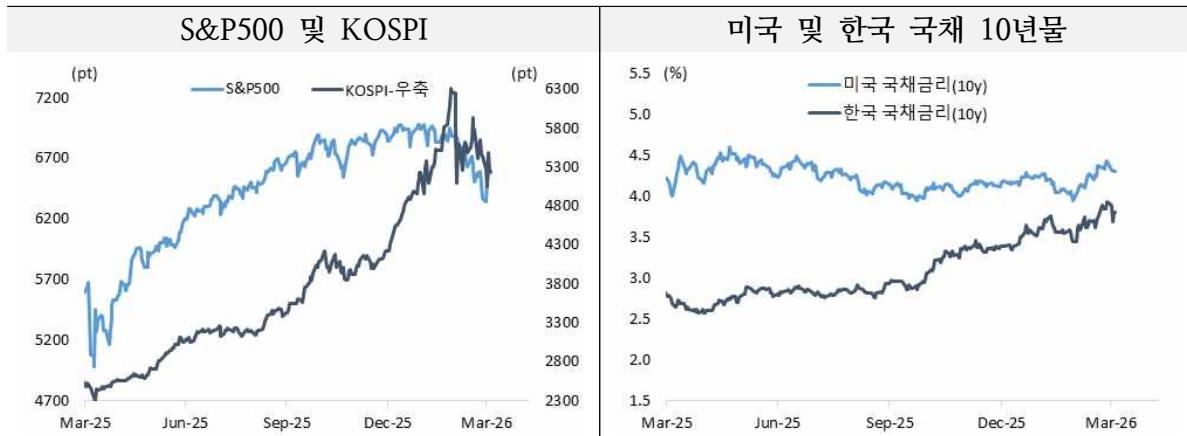
■ 중국의 중동전쟁 발 미국 영향력 저하자국의 위상 강화 기대, 현실과 괴리 - The Economist

(How China hopes to win from the war)

- 중국은 중동전쟁으로 미국 쇠퇴의 가속화를 예상. ▲중동전쟁 지속 가능성 ▲미국의 아시아 지역 영향력 감소 ▲동맹국과의 신뢰 저하 가능성 등이 제기되기 때문. 이는 곧 자국의 영향력 확대 전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낙관 전망에 타당성을 부여
- 그러나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우수하며, 전쟁 장기화 시 수출주도형의 자국 경제도 피해를 겪게 된다는 점을 간과. 또한 미국은 과거 여러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극복 능력을 보였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 아울러 중국은 인구 고령화 및 이념적 제한 등으로 미국과 같은 글로벌 영향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존재

- **미국 트럼프의 보호무역, 닉슨 시대 보호무역의 ‘더 어두운 재현’ - Financial Times**
(Trump’s protectionist Nixon redux takes a darker turn than the original)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맨’을 자처하며 무역질서 재편에 나섰지만, 다자무역과의 단절만을 초래. 관세정책은 여러 상충된 목표를 추구하며 효과가 제한되었고, 중국의 희토류 압박과 공급망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후퇴
 - 이는 닉슨 대통령이 집권 초기 동맹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 공격적인 보호무역을 추진했던 것과 유사. 그러나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아랍의 석유 금수 조치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보호무역 동력을 상실하고 자유무역으로 선회. 트럼프도 엡스타인 사건과 유가 충격 속에서 유사한 압력에 직면. 트럼프의 파괴적 경제 민족주의와 비교 시 닉슨 시대는 오히려 다자주의의 황금기로 평가 가능
- **미국 트럼프 연설, 사실상 전략적 패배를 승리로 포장 - 블룸버그**
(Trump’s speech dressed up defeat as victory)
- **미국의 나토 동맹 분열 분위기 조성, 적성국에 유리한 전략적 실수가 될 소지 - WSJ**
(Bomb Iran but Blow Up NATO?)
- **미국 트럼프의 관세정책, 비판과 달리 성과 입증 등으로 정당성 강화 - Financial Times**
(The case for Trump’s tariffs looks strong a year on from ‘liberation day’)
- **아시아 국가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각기 다른 외교적 해결책 모색 - 블룸버그**
(Asian Nations Jockey for Leverage to Re-Open Hormuz Strait)
- **글로벌 방산 업체, 무기 재고 부족 국방 필요성 증대 등으로 호황 예상 - Financial Times**
(From Lockheed to European start-ups, arms makers jostle for Iran war orders)

금융시장 주요 지표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